화순군, 아스파라거스 수출량 증가…농가 고소득 기대

"생산기반 확대 · 품질 향상으로 수출 확대"…브랜드 구축 나서

화순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아스파라거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내고 있다.

급변하는 기후와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 수출량을 확대해 판로를 개척,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기대된다.

◆ 화순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 확대

화순군에 따르면, 5월까지 화순 아스파라거스 약 1.8t이 5차례에 걸쳐 일본에 수출된다.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17%가량 증가한 규모로 화순 아스파라거스의 우수성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화순 아스파라거스 일본 수출 길은 지난해 다시 열렸다. 처음 수출한 2011년 이후 실적이 없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와 농가가 협력해 문을 두드린 결과, 지난해부터 다시 수출하게 됐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춘양면 주요 소득 작물로 아스파라거스를 선정, 재배 농가를 육성해 왔다. 11개 농가 4.9ha로 전남 재배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화순 아스파라거스 브랜드 구축,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2022년까지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신소득 작목 아스파라거스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남도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아스파라거스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신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기존 비가림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 온도 저감 시설, 관수 시스템을 지원한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스파라거스 수출 전략 모델 개발 협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2000만 원을 들여 굵은 직경을 선호하는 일본 소비자 기호에 맞춰 수출 규격품 생산 종합 생산기술을 실증 연구하고 있다.

◆ 수출 전략 모델 연구, 품질 향상 추진…판로 개척 기대

이와 함께 한경대학교와 함께 수출 품질 향상을 위한 글로벌 GAP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GAP은 유럽 등 160개 국가가 참여하는 농산물 인증제도로, 재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다.

양태정 화순아스파라거스 영농조합법인 회장은 "시설하우스의 정밀 환경관리를 통해 고품질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수출 선호 규격은 내수 시장에서 선호도가 낮은 굵은 아스파라거스(40g 이상/1개)로 수출시장과 내수 시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순 아스파라거스는 국내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고소득 작물로 판로가 넓어지고 있다"며 "수출 확대로 국내 출하 성수기(4~5월)의 내수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 다각화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남도기술원 원예연구소장(왼쪽 2번째)과 연구소 관계자, 양태정 화순아스파라거스영농조합법인 회장(오른쪽 4번째)과 농가, 박용철 화순농업기술센터소장(오른쪽 3번째)과 센터 직원.

화순=박순철 기자

장성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가 만족도 높아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대상 6억800만원 투입 62동 지원

장성군이 과수, 채소 등 원예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원예농산물의 보관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특히, 수확기 농작물을 시장 수요에 맞춰 일정기간 동안 저장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설치 비용이 높아 농업인의 부담이 크다. 통상적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에는 규모와 유형에 따라 600~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장성군은 올해, 도비 포함 총 사업비 6억800만원을 확보하고 저온저장고 62동에 대한 설치 비용을 농가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채소, 과수, 특용작물 등 원예 농산물 재배농가다. 장성군은 대상에 선정된 농가에 총 설치 비용의 40~50% 가량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서면 평가를 거쳐 9개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농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의 이번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상품성 증대와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기존 관수시설 활용 저비용 과수 동상해 방지 시설 보급

곡성군이 기존 관수시설을 활용한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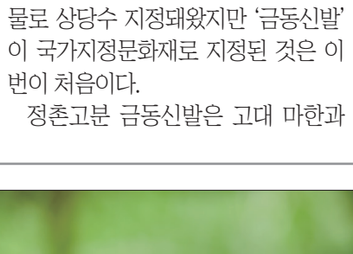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과수가 빠르게 개화한 이후 4월 초쯤 하루 이틀 새벽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서 냉해의 위험이 상시화 되면서 1년치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이다. 냉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 살수나 공기순환 장치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설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기존 관수시설을 이용한 저비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을 보급하고자 올해 농촌진흥청 국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곡성군이 도입하는 방식은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 화목보일러와 관수 탱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시설은 4~5백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곡성군은 곡성배영농조합법인 소속 10농가에 시설을 보급한다. 이후 시범 농가의 의견을 취합해 시설 개선점을 찾고, 사과나 체리 등 다른 작물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생각이다.

곡성=양해영 기자

'발등 용머리의 위용' 나주시, 정촌고분 금동신발 보물 됐다



현존하는 금동신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지난 2014년 출토됐던 나주시 다시면 '정촌고분 금동신발'이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25호' 지정
지난 2014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
발등 부분 '용머리 장식'현존 금동신발 중 유일

나주시는 21일 문화재청이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12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삼국 시대 고분 출토 유물 중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이 국보나 보물로 상당수 지정돼왔지만 '금동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촌고분 금동신발은 고대 마한과 삼국시대 대형 분구묘인 나주 다시면 정촌고분 1호 석실에서 지난 2014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했다.

5~6세기 무렵 영산강 유역에는 복암리 고분군, 정촌고분, 영동리 고분 등 대형 고분이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 정촌고분은 도굴 피해 없이 매장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1500여년 전 마한과 백제 문화를 가장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이면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덤으로 꼽힌다.

정촌고분 1호 석실 제3목관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은 좌(길이 31.09cm, 너비 9.2cm)·우(길이 31.83cm, 너비 9.35cm) 신발 한 쌍이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완벽한 모습으로 출토되면서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특히 발등 부분에 부착된 '용머리 장식'은 현존하는 삼국시대 금동신발 중 유일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금동신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최근 신발의 주인공을 40대 여성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 금동신발은 형태와 제작기법, 문양 등에서 고대 금속공예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얇은 금동판 4장으로 바닥판과 좌우 옆면판, 발목깃판을 만들어 서로 작은 못으로 연결했고 문양을 투각해 세부를 선으로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육각문, 용문, 인면조신(人面鳥身), 괴수문, 연화문 등 사후영생(死後永生)을 기원한 고대인들의 사후 세계관을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조형물 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유물로 평가 받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정촌고분 금동신발의 국가 보물 지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는 물론 우리 시가 역점 추진 중인 마한사복원 정책과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립나주박물관, 복암리고분전시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힘써 고대사 복원에 따른 나주인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